

4월 다섯째 주 기사 스크랩

[주요 뉴스]

COSMETIC INSIGHT
COS'IN

K-뷰티 & 방역용품 중국, 일본 등 9개국 유력 바이어 22개사와
화상상담회 개최 (p. 1-2)

<https://www.cosinkorea.com/news/article.html?no=35432>

한국경제

"국내는 좁다"...렌탈기업들, 해외진출 가속 (p. 3-4)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042298621>

아시아타임즈

'포스트 코로나' 앞두고 미래 낙관하는 인니 소비자들 (p. 5-6)

<https://asiatime.co.kr/news/newsview.php?ncode=1065596366789861>

Digital Today

인니-베트남-태국-싱가포르... '핀테크 실�크로드' 윤곽 (p. 7-10)

<http://www.digital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1635>

K-뷰티 & 방역용품 중국, 일본 등 9개국 유력 바이어 22개사와 화상상담회 개최

김대환 기자 kdh1909@cosinkorea.com 등록 2020.04.23. 12:14:22



▲ 한국무역협회 한진현 부회장과 중소벤처기업부 강성천 차관이 직접 화상 상담에 참여하고 있다. 좌석 오른쪽 끝에서부터 한진현 부회장, 강성천 차관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 기자] 한국무역협회(회장 김영주)와 중소벤처기업부는 4월 23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K-뷰티 & 방역용품 화상 수출상담회'를 개최했다.

중기부 지원으로 한국무역협회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중앙회 등 수출지원기관이 함께 준비한 이번 상담회는 'K-뷰티'와 'K-방역용품'을 주제로 중국, 일본, 인도네시아 등 총 9개 국가 유력 바이어 22개사와 국내 중소, 중견기업 50개사가 참가했다.

주요 바이어는 중국 최대 온오프라인 통합 유통기업인 쉐닝닷컴과 중국 전자상거래 2위인 징둥닷컴, 인도네시아 5대 제약기업인 인더르밧, 일본의 한국 제품 유통 전문기업 해피쇼쿠헌, 리투아니아의 이미용품 유통기업 유에이비카리부스 등이 참여했다.

이날 화상상담회 현장에는 한국무역협회 한진현 부회장과 중기부 강성천 차관이 방문해 수출기업과 바이어를 격려하고 해외 마케팅 관련 우리 기업들의 어려움을 청취했다.



▲ 화상 상담 중인 기업을 둘러보고 있는 모습. 뒤쪽 왼편부터 중소벤처기업부 강성천 차관, 한국무역협회 한진현 부회장

한진현 부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마케팅이 새로운 트렌트로 자리 잡은 만큼 화상 수출상담회와 같은 온라인 해외 마케팅 확대를 통해 수출업계를 선도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한국무역협회 등과 협력해 7월까지 온라인 화상 수출상담회를 10회 개최하고 총 400개 중소기업 해외 마케팅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한국무역협회는 이와 별개로 매주 화상상담회를 개최해 오고 있으며 오는 4월 27~28일에는 인도네시아, 5월 7일에는 전자정보통신(ICT), 5월 13일에는 중앙아시아 바이어 초청 화상상담회를 계획하고 있다.

"국내는 좁다"...렌탈기업들, 해외진출 가속

입력2020.04.22 17:36 수정2020.04.23. 02:16

- || 국내 계정 1500만...내수 포화
- || 글로벌 시장으로 눈 돌려
- ||
- || 최대 시장은 말레이시아
- || 코웨이, 현지계정 151만 넘어서
- || 쿠쿠, 작년 해외매출 90% 차지

국내 대표 렌탈기업 코웨이(60,100 +0.50%)는 지난해 '말레이시아 백만 고객 사업자' 타이틀을 달았다. 2018년 말 97만6000개였던 렌탈 계정이 지난해 말 135만4000개로 40% 가까이 증가했다. 최근에는 151만 개까지 늘었다.

코웨이는 현지 정수기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다. 국내 시장을 놓고 치열한 경쟁구도를 보였던 렌탈기업이 해외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계에 다다른 국내 시장을 벗어나 신규 수익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이미 시장 개척에 성공한 말레이시아를 발판으로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으로 보폭을 넓히는 추세다.

국내 렌탈계정 1500만 시대

해외사업 확장하는 렌탈기업

(단위:만개)

기업	국내 계정수	해외 계정수	진출국가
코웨이	628	151	말레이시아, 미국 태국, 중국, 인도네시아
쿠쿠	158	83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브루나이, 미국
청호 나이스	150	4	베트남 말레이시아
SK매직	185	미공개	말레이시아 일본, 베트남

22일 렌탈 업계에 따르면 국내 생활기기 렌탈기업에 가입한 계정은 이미 1500만 개를 넘어섰다. 628만 계정을 보유한 코웨이를 비롯해 LG전자(54,300 +1.31%)(200만 개), SK매직(185만 개), 쿠쿠(158만 개), 청호나이스(150만 개), 교원 웰스(73만 개), 바디프랜드(69만 개), 현대렌탈케어(38만 개) 등이다.

전반적인 계정 수는 증가했지만 개별기업 상황은 녹록지 않다. 최근 2~3년 사이 교원 웰스, 바디프랜드, 현대렌탈케어 등 시장 후발주자가 공격적으로 나서면서다. 청호나이스 관계자는 “업계에서는 슬슬 ‘국내 시장이 포화상태’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렌탈기업들의 신사업 확장 이야기가 꾸준히 나오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렌탈업체들은 글로벌 시장 확대로 돌파구를 찾고 있다. 우선 코웨이가 2007년 말레이시아를 시작으로 미국과 태국, 중국, 인도네시아에 나가 있다. 쿠쿠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를 포함해 4개 국가에 진출했다. 청호나이스는 말레이시아와 베트남에서 렌탈 사업을 진행 중이다. SK매직은 말레이시아와 일본, 베트남에 주력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가 거점

이 중에서도 말레이시아는 국내 렌탈업계의 ‘글로벌 요충지’로 꼽힌다. 진출한 지 10년이 넘은 코웨이가 현지에서 렌탈 시장 기반을 충분히 닦아둔 영향이 크다. 2013년 719억원에 그쳤던 말레이시아 내 코웨이 매출은 지난해 말 5263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여기에 미국 법인 실적(973억원) 등이 겹치면서 코웨이는 지난해 7491억원의 해외 매출을 올렸다.

쿠쿠 역시 지난해 말레이시아에서만 전체 해외 매출의 90%에 달하는 2560억원을 냈다. 전년 동기보다 116% 늘어난 규모다. 2018년 말 말레이시아에 진출한 SK매직은 지난해 전년보다 439.57% 늘어난 매출 증가율을 기록했다.

코웨이 관계자는 “말레이시아는 경제 성장률이 가파른 데다 ‘깨끗한 물’에 대한 수요가 높은 국가”라며 “직접 가정에 방문해 정수기를 관리하는 국내식 렌탈 서비스에도 긍정적이라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현재 코웨이의 말레이시아 렌탈 전담인력은 4300명에 달한다.

말레이시아 다음으로 주목받는 곳은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다. 쿠쿠의 지난해 말 인도네시아 매출은 전년 동기보다 583% 성장했다. 베트남도 인기 진출 국가로 꼽힌다. 청호나이스는 2017년 베트남 법인을 설립한 후 판매 지역을 하노이에서 지난해 호찌민까지 확장했다. 판매 제품은 정수기, 공기청정기, 연수기, 비데 등 생활가전 전반이다.

일부 기업은 미국 시장에서도 사업을 전개 중이다. 코웨이의 지난해 말 미국 렌탈 계정 수는 12만 개를 달성했다. 코웨이 관계자는 “미국은 실내 카펫을 사용하고, 대형 애완동물을 키우는 환경 때문에 공기청정기 수요가 높다”고 했다.

'포스트 코로나' 앞두고 미래 낙관하는 인니 소비자들

김태훈 기자 / 기사승인 : 2020-04-23 16:24:04



▲ 인도네시아의 한인 스타트업 퀵스, 냉장·냉동 박스로 식품 배달 (사진=연합뉴스)

[아시아타임즈=김태훈 기자] 인도네시아 소비자들은 중국과 더불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도 향후 경기를 낙관적으로 전망하며 새로운 시대에 전자상거래와 핀테크 등 산업 잠재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23일(이하 현지시간) 인도네시아 현지매체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최근 글로벌 경영컨설팅업체인 맥킨지는 보고서를 통해 인도네시아 소비자 절반 이상은 향후 2~3개월 내 경기가 반등할 것으로 예상해 중국과 더불어 미래 경기를 가장 낙관적으로 전망하는 국가 중 하나로 꼽혔다고 밝혔다.

또한 인도네시아와 중국 소비자들은 향후 경기를 낙관적으로 바라보는 만큼 소비를 늘릴 준비가 됐다고 응답한 반면, 유럽 소비자들은 다소 비관적인 전망이 더 강했다.

이는 가계소비가 국내총생산(GDP)의 약 60%를 차지하는 만큼 투자와 수출보다 소비가 경제를 이끄는 구조를 갖춘 인도네시아에 반가운 소식이다.

시장조사업체인 칸타르 인도네시아가 발표한 보고서에서도 결과는 비슷했다. 지난달 25일 칸타르가 인도네시아인 642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들은 코로나19 사태를 걱정하면서도 과도한 불안감에 빠지는 대신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도네시아 소비자들은 말레이시아와 더불어 SNS에서 코로나19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보다 긍정적인 이야기가 좀 더 많은 유일한 국가였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 기업들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변화할 소비자 행동을 포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산업 관점에서는 전자상거래, 배달 서비스, 재택근무, 통신과 미디어, 온라인 학습, 클라우드 컴퓨팅, 원격진료, 청소 서비스, 홀트레이닝 등이 성장하는 반면, 석유와 가스, 건설업, 자동차 및 전자제품 판매, 영화관, 항공과 호텔업, 레스토랑, 오프라인 소매업 등은 이전보다 쇠퇴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대표적으로 코로나19로 매장 방문을 기피하는 손님들이 늘자 레스토랑은 타격을 입은 반면, 집 안에서 스스로 요리를 해먹는 소비자들이 늘며 주방기구 판매는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다.

영국 시장조사업체인 민텔의 탄 헝 홍 아시아 식음료 애널리스트는 “집 안에 머무는 시간이 늘며 요리에 관심을 가지는 소비자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코로나19가 구산업과 신산업의 격차를 넓히는 촉매제 역할을 했으며, 구산업 중 일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살아남겠지만 비즈니스 모델은 이전과 많이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레스토랑 산업은 매장을 직접 방문하는 대신 배달 서비스를 선호하는 소비자들에게 더 집중할 수 있다.

특히 인도네시아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전통적인 약물 치료법인 ‘자무’가 관심을 받고 있다. 맥킨지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소비자 4명 중 3명 이상은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유지해 면역체계를 강화하는 방법에 관심이 많았다.

실제로 현재 ‘자무’ 생산업체들은 매출이 증가하고 있으며, ‘자무’는 에스프레소처럼 평소에 자주 즐겨 마시는 음료가 될 수 있다고 북유럽 벤처투자기업인 인벤처는 예상했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차량공유업체 고젝, 전자상거래업체 토코페디아, 여행플랫폼 트래블로카 등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 이상인 유니콘 기업 다수를 보유하고 있다.

인니-베트남-태국-싱가포르... '핀테크 실�크로드' 윤곽

신민경 기자 승인 2020.04.26 09:00

국내 핀테크社 우선진출 아세안국가 4곳으로 좁혀져
인니·베트남·태국, ICT 도입률 높고 인구수 많아 침투 용이
싱가포르, 기업 친화정책으로 자금조달 등 유리
진출사례 불과 10곳... 금융당국 핀테크랩·핀테크위크로 확대 노력



[디지털투데이 신민경 기자] 국내 핀테크기업의 해외 진출이 새로운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진출 대상이 될 국가들의 윤곽이 잡혔다.

26일 삼정KPMG 경제연구원이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2019 아세안 주요국 핀테크 산업 동향 조사'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핀테크기업이 우선적으로 진출해야 할 아세안 국가로 인도네시아·베트남·태국·싱가포르 등 4개국 이 지목됐다.

앞서 지난해 9월 은성수 위원장의 취임을 계기로 금융위는 '한-아세안 핀테크 컨퍼런스'를 열고 국내 금융사의 해외 핀테크랩 유치에 주도하는 등 한국과 아세안 지역의 핀테크 협력에 공을 들여왔다.

이번 연구용역도 같은 맥락이다. 아세안 주요 나라의 핀테크 산업 동향을 살피고 우리 핀테크 비즈니스 모델의 효과적인 해외 진출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인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선 진출국 선정 기준으로 ▲국가별 1인당 국내총생산(GDP)과 경제성장률 등 경제발전 수준 ▲금융소외 지표 ▲정부의 핀테크정책 안정성과 금융부문 규제 강도 ▲무선 모바일 가입률과 광역대 가입수 등의 정보통신기술(ICT) 도입 수준 등을 따졌다.

인도네시아는 2억7350만명을 웃도는 높은 인구수와 양호한 GDP(1조422억달러)에 비해선 금융시장 규모가 작은 편이지만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두번의 금리 인하 이후 금융수요가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어 오는 2023년까지 연평균 5.1%의 경제 성장이 전망된다.

최근 인도네시아의 많은 벤처투자기업들은 포화상태인 전자상거래를 벗어나 핀테크부문 투자를 늘리고 있다. 지난 2016년 3450만달러에 그쳤던 VC 핀테크 투자액은 2018년 들어 1억8230만달러로 불어났다. 지난해 5월 기준 인도네시아 내 핀테크기업은 249개로 이 가운데 전자결제업체는 65곳이다.

젊은 인구가 많아 휴대전화와 인터넷 보급률도 급증세다. 인터넷 사용인구는 지난 2018년 기준 1억670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63.3%다. 스마트폰 보급률은 2017년 61%로 집계됐다. 현재 인구의 약 51%가 금융소외층이다. 다만 지역적으로 금융격차가 심하고 국민의 30%만이 금융이해력을 갖고 있는 점은 걸림돌이다.

국가 기준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싱가포르
GDP 성장률	5%	7.08%	4.1%	3.1%
평균연령	28.8세	32.6세	38.3세	40.2세
금융 포용률	48.9%	31%	82%	98%
모바일 가입수	4억3500명	1억4330억명	9200만명	835만명
인터넷 보급률	63.3%	66%	82%	88.2%
스마트폰 보급률	61%	72%	90%	100%

아세안 국가별 금융혁신 현황.

베트남도 스타트업에 기회의 땅으로 불리긴 마찬가지다. 9730만명이 넘는 인구에 평균 연령은 불과 32세로 신기술을 빠르게 흡수할 수 있다. 전체 GDP(2450억달러) 중 은행과 보험 등 금융부문의 비중이 5.8%에 이른다.

올해 베트남 핀테크시장의 규모는 약 78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기준 핀테크기업은 총 120개다. 이중 35곳(29%)이 간편 결제와 송금 부문을 영위하고 있다. 앞선 2018년 3분기 기준 디지털 전자결제 거래액은 그해 1분기의 갑절 수준으로 올랐고 모바일 뱅킹 결제액도 5년간 연평균 144%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규제 수준이 급성장 중인 금융기술력에 못 미친다는 점은 우려요소다. 핀테크 규제의 부재가 산업 발전과 감독기관 통제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해결을 위해 베트남 중앙은행과 재정부 산하 증권위원회, 보험감독청 등이 규제 수립에 돌입한 상태다.

태국도 금융산업이 GDP(5050억달러)의 7.3%를 차지할 만큼 금융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크다. 지난 2016년부터 5년간 '금융분야 개발 마스터 플랜'을 시행해 개인 고객과 기업의 금융혁신 의지를 부추기고 있다. 이에 2위 은행인 '시암 상업은행'은 올해 말까지 점포 30%를 없애고, 모바일 뱅킹 플랫폼 활용도를 높인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금융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보편화돼 있다. 2017년 기준 금융포용률은 82%, 계좌 보유율은 28%다. 인터넷 보급률도 82%(2018년)로 전년보다 15%포인트나 증가했다.

태국은 특히 자금조달·대출부문 핀테크기업에 매력적인 시장이다. 태국 은행은 다른 아세안 국가에 비해 예대금리차가 높은 편이라 가계의 이자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핀테크기업이 투자자와 대출자 간 중개로 은행보다 낮은 대출 금리를 제공한다면 많은 대출상품들을 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서는 내다봤다.

정부의 안정적인 금융지원이 유지되고 있는 싱가포르 시장도 주목할 만하다. 지난해 기준 GDP의 13% 가량을 차지하는 싱가포르 금융시장은 해외 금융기업들의 진입 장벽이 낮은 편이다. 싱가포르 은행 132곳 중 128곳이 외국인 소유다.

핀테크업계에 대한 전통금융의 시선도 호의적이다. 싱가포르 내 금융기관의 62% 가량이 벤처 육성 프로그램 등을 통해 핀테크업체와 사업 제휴를 맺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싱가포르 정부는 핀테크 생태계 조성에 적극적이다. 핀테크 전담조직인 '핀테크 혁신그룹 (FTIG)'을 만들어 규제 정책과 기술 혁신 전략을 펴고 있고 '핀테크 오피스'를 개방해 보조금과 지원제도를 운영 중이다.

국민의 이해도도 상당하다. 금융포용률은 2017년 기준 98%로 조사됐고 평균 연령이 40세로 인근 아세안 국가에 비해 높은 편인데도 스마트폰 보급률은 100%를 기록했다.

삼정KPMG 경제연구원 디지털본부 관계자는 "그랩과 고젝 등 대표 유니콘기업이 아세안 지역 내 슈퍼앱으로 자리잡은 상황에서 국내 핀테크기업이 주도권을 쥐려면 은행의 틈새시장을 공략하는 게 좋을 것"이라며 "현지 금융사나 해외에 진출해 있는 국내 금융사와 제휴해 협업 모델을 만들고 파트너사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업명	진출국	서비스	MoU 체결
원투씨엠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 제휴사를 통한 로열티 마케팅, 모바일 바우처 등 다양한 모바일 지불-결제 서비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K-솔루션 페어 참여 ▪ 말레이시아 서비스 출시 및 법인설립
이나인페이	베트남/ 캄보디아	▪ 기획재정부로부터 '소액해외송금업 1호' 라이선스를 취득하여 네팔, 캄보디아,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중국 외 10개 국가에 해외송금 서비스 제공	▪ 베트남, 캄보디아 현지 법인 설립
페이게이트	베트남	▪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전자결제 서비스 플랫폼 업체	▪ 베트남 현지 법인 설립
디리아	베트남/ 캄보디아	▪ 채널 연계 및 금융 솔루션을 중심으로 개발한 10개의 자체 솔루션 보유 (대내외 MCA, EAI, 지급결제, 펌뱅킹 등)	▪ 베트남 현지 핀테크 기업 인포플러스와 총판 계약 ▪ 베트남-펌뱅킹 시스템 구축, 캄보디아-지급결제 시스템 구축
샌드버드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 채팅용 API(Chat API)와 채팅 소프트웨어 개발킷(Chat SDK)을 개발 및 솔루션 제공	▪ 고젝, 캐로셀 등 금융사 및 핀테크 기업에게 솔루션 공급
엔이젠글로벌	베트남	▪ 인공지능을 금융의 핵심 기능에 접목하는 혁신 AI 금융 전문 기업	▪ 하노이 핀테크 데모데이 참여 ▪ 우리은행 디노랩 베트남 1기
웹케시	캄보디아/ 베트남	▪ 금융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솔루션 제공 기업	▪ 캄보디아-HRD센터설립 ▪ 베트남-법인설립
피노텍	인도네시아/ 베트남/ 미얀마	▪ 비대면 실명확인, 로봇 카운셀링, 전자계약, 비대면 담보대출 등 다양한 금융 분야 솔루션 제공	▪ 현지 금융기관에 플랫폼 제공
쿠콘	캄보디아	▪ 금융기관 및 국내 500여 기관, 해외 2,000여 기관에서 50,000 이상의 비즈니스 정보 수집 후 금융기관 및 핀테크 기업에 제공	▪ 캄보디아 법인(아웃소싱 센터) 설립
포시에스	싱가포르	▪ 리포팅 및 전자문서 생성 솔루션 개발 업체 - OZ e-Form: 기업 데이터와 연계한 다양한 서식의 문서 작성 가능	▪ 싱가포르 현지 법인 설립

아세안 진출 주요 국내 핀테크기업 현황. (자료=삼정KPMG 경제연구원)

금융당국, 코로나19 변수에도 핀테크 해외진출 지원 '잔걸음'

한국핀테크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기준 원투씨엠과 피노텍 등 국내 핀테크기업 10곳이 아세안 시장에 진출해 있다. 전체 핀테크기업이 300곳을 웃도는 점을 감안하면 3% 가량만이 외국 땅을 밟은 것이다.

스마트스탬프 기술업체인 원투씨엠은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연 인도네시아 K-솔루션 페어에 참가했다. 말레이시아에 서비스를 출시한 상태이며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엔 법인을 설립했다. 전자등기 대출 플랫폼인 피노텍도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미얀마에 진출해 있으며 현지 금융기관에 비대면 담보대출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다.

올해도 금융당국은 관련 지원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예상치 못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해외 진출길이 막힌 상태지만 가능한 시나리오들은 최대한 실행에 옮기겠다는 의도다.

금융위는 오는 5월 28일부터 3일 동안 온라인으로 열리는 '2020 코리아 핀테크 위크'에서 핀테크기업·금융사·빅테크기업 등의 기업정보와 핀테크서비스를 공개한다. 참여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주요 진출 대상국의 금융당국과 대사관 등에 온라인 전시관 링크를 전달할 계획이다.

또 지난해 12월과 올 2월 각각 발표한 '핀테크 스케일업 추진전략'과 '2020년 핀테크·디지털 금융 혁신과제' 등에서 발표한 것처럼 금융위는 올해 안으로 해외 핀테크 랩 2개 추가 설치를 추진한다. 현재까지 우리 금융회사가 해외에 세운 핀테크 랩은 신한금융 퓨처스랩 베트남·인도네시아, 우리금융 디노랩 베트남 등 3개다.

한 핀테크업체 관계자는 "인도차이나 시장은 값싼 인건비 덕에 모델링을 하기 좋은 데다 금융포용력이 낮아 성장 잠재력이 크지 않느냐. 이미 시장 파이 싸움이 격화한 우리나라에 비하면 경쟁도가 낮을 것"이라면서 "정부 지원도 꾸준한 상황이니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국가간 입국금지 등이 풀리면 해외진출을 모색하려 한다"고 말했다.